



화순군, 전국 최초 의료연계 산림치유단지 조성 '속도'

산림·의료 등 자원 연계...2021년까지 완공



화순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치유·휴양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의 메카로 발달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오감연결길, 치유 숲길, 치유의 숲 센터, 숲속 체험장 등 '민연산 치유의 숲' 조성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민연산 치유의 숲 조성에 이어 화순군은 산림치유·휴양·레저 시설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군은 전국 최초로 '의료연계형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해 산림치유와 휴양의 메카로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의료연계형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한다. 의료연계형 산림치유단지는 산림청이 사업을 시행한 후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조성 계획 수립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열 의회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산림치유·휴양·관광, 의료 인프라(의료관광),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산림치유단지 기반 조성하고 함께 더욱더 다양한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치유 도시 화순'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산림치유단지뿐 아니라 화순 공립수목원, 천운산 산림레포츠단지 등 산림치유·휴양·레저 시설 기반을 계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화순민의 산림복지 모델을 만들어 증가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완도수영장 준공...내달 2일 개장



완도군은 지난 13일 주민 생활 체육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완도수영장 준공

식 및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가졌다.

2015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도수영장은 완도초등학교 내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90억 원(국비 30억, 군비 40억, 도교육청 20억)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은 수영장(25m, 6레인), 지상 1층은 매표소, 사무실, 지상 2층은 체육관 등이 갖춰졌다.

완도수영장은 준공 이후 시험 가

동을 통해 4월 2일 군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며, 사용 요금은 1일 이용권(입장료)의 경우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경로 1,500원으로 월권은 성인 기준 50,000원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06:00~21:00, 주말(토, 일) 07:00~18:00,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수영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061-550-5115)

완도=김광수 기자

곡성군,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 영농기 이전 속도

소유자 동의 거쳐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등록

곡성군이 군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이하 '편익 증진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편익 증진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해결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민 요구에 따라 상향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 '주민숙원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업은 주로 마을 안길 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

로 진행된다. 이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 대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주민들의 높은 요구와 기대에 곡성군은 편익 증진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 116건, 2월에는 179건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총 295건 7,864백만원에 대해 사업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사업을 빠르게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곡

성군 안전건설과와 읍면 시설직(토목)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작년 11월 22일부터 올 2월 22일까지 70일 간 합동집무를 통해 매서운 캠퍼스 추위 속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측량하며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했다.

군은 설계를 토대로 영농기 이전에 2019년 본예산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영농으로 바쁜 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 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21일 개막



4일간 70여개 체험·공연 열려

해마다 유채꽃이 필 무렵이면 진도군 앞바다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작은 기적이 일어난다.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로 길이 2.8km에 걸쳐 폭 400m의 바닷길이 1시간 동안 드러나는 신비로운 자연현상이 펼쳐진다.

진도군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고군면 회동리와 모도 일대에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miraclesa.jindo.go.kr)'를 연다.

올 해로 41회째를 맞는 축제에서는 21일 오후 6시, 22일 오후 6시40분, 23일 오전 6시50분과 오후 7시10분에 바닷길이 갈라지는 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신비의 바닷길 걷기이다. 바닷길이 드러나는 한 시간여 동안 흥겨운 풍악에 맞춰 섬과 섬 사이를 걸으며 바닷속을 걷다가 개펄에 드러난 조개·낙지·소라·전복을 가져 오는 것도 재미이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로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 축제기간에는 뽕할머니 제례를 시작으로 진도 씻김굿, 상주놀이 일종인 진도만가, 상주를 위

로하는 진도 전통 가부악극 '다시 래기' 등 20종의 무형문화재공연 등이 공연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진도아리랑과 강강술래를 비롯해 주민 300명이 참여하는 진도 북놀이 퍼레이드, 뽕할머니 소망피릿기, 신비의 바닷길 만남 한마당(영등살 놀이), 신상농악 뽕놀이 등 진도의 온갖 진귀한 흥에 취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글로벌 행사 답게 열려라 무지개 길(컬러풀 진도), 응답하라 '모세의 기적' 플래쉬 몹, EDM 올 나잇 스탠드 쇼(야간행사), 미라클 레이저쇼 새벽 바닷길 핫볼 퍼레이드, 글로벌 씨름대회도 준비돼 있다.

진도 토종견으로 천연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된 진도개 경주와 묘기, 진도홍주 체험, 신비의 해수 족욕 체험, 뽕할머니 소망 기념품 만들기 등은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담양군, 농업용 굴삭기 등 농기계 교육

농기계 안전한 사용 위한 실습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담양군은 농기계 조작이 서투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와 트랙터 교육을 22일까지 진행한다.

농업용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은 작년까지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기계연계사업소 실습교육장에서 작동원리, 운전 조작, 취급요령 등 실습을 위주로 진행해 임대한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실습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및 간단한 정비기술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농업인의 호응을 얻

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작이 미숙해 농기계 임대가 불가능했던 농업인들의 임대율이 높아지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를 활용한 상시교육 체계로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농어촌 빈집 정보 귀농인에 제공

장흥군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월 말까지 농어촌 빈집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은 장기간 방치돼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해치고 범죄 우범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번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는 장흥군 전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파손 등 거주가 어려워 철거가 필요한 빈집과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공지 활용 가능한 빈집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 귀농귀촌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도시민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필요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중순 군수는 "이번 조사에 빈집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